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연구 - 양부모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 경 은¹⁾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이 주 리²⁾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며, 또한 경제수준, 부모애착, 학업성적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양부모 가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Pearson 상관관계 및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정 자녀와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모든 연령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애착 또는 경제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중학교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학업성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고 1시기에는 학업성취만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양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의 시기에서 학업성취와 부모애착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한부모 가정 자녀, 양부모 가정 자녀, 자아존중감, 연령에 따른 변화

1) 주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박사과정 (E-mail : rubysaza@hanmail.net)

2)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julie@cau.ac.kr)

I. 서론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부모 중 한사람과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1995년 6.4%, 2000년 7.0%, 2005년 8.3%로 나타나(통계청, 2007)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사별 뿐 아니라, 최근 이혼, 미혼모 등의 증가로 인해(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거나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이별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며 빈곤과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부모가 함께 있는 대부분의 또래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아존중감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보통 자신에 대한 만족 혹은 호의 정도로 정의된다(Brinthaupt & Erwin, 1992). 이는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윤신기, 2004), 우울, 자살생각 등 내면화 증상과도 연관이 있다(김선화, 김춘경, 2006; 박병금, 2007).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가족 구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부모 가정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

자녀들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기의 연령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오승환, 2001; 현은민, 2007; 홍순혜, 2004)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성장과정의 아동들은 발달을 이루어가면서 심리적 특성들이 달라질 수 있고, 발달단계마다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들도 다를 수 있다. 이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인 자료를 통해 각 연령별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양부모 가정 자녀들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에 따라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양부모 가정 자녀들과 환경적으로 다른 가족 구조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양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도 함께 분석해봄으로써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양부모 가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때 그러한 차이는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고등학생인 청소년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양부모 가정과 비교했을 때 자아존중감의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오승환, 2001; 정익중 등, 2006) 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양부모 가정 아동들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정희정, 200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본다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한 연구에서 각 연령마다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양부모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령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족 구조상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아존중감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홍순혜(2004)의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과 양육태도 등 가족 내의 다른 특성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들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가족요인에서 빈곤, 부모와의 관계의 질, 아동 요인에서 학업성취가 주로 언급된다. 먼저, 한부모 가정의 환경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빈곤일

것이다. 현은민(2007)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절반 가량인 47%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가장 힘든 점으로 56%가 경제문제를 꼽았으며, 오승환(2001)의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족은 양친가족에 비해 월수입이 훨씬 낮았다.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한부모 가족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현은민, 2007), 이를 통해 빈곤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의 수입이 자아존중감을 포함하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Gershoff et al., 2007) 모-자 가족의 어머니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을 때,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Kalil & Ziolo-Guest, 2005)를 볼 때, 빈곤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둘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질은 부모애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홍순혜,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박영애 등, 2002)들을 볼 때,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이숙정(2006)의 연구에서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 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윤경희와 김경희(2003)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와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및 사회적 등 모든 자아개념과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학업성취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모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예측변인들이 달라질 수 있음이 간과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관계가 중, 고등학교 시기에 비해 보다 중요한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반면, 중고등학교 시기에서는 그 이전보다 부모-자녀 간의 접촉 시간이 줄어들고 또래가 중요한 환경으로 등장하면서 학교에서의 학업성취가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수준, 부모애착 및 학업성취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 요인들의 영향력이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양부모 가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 방향을 마련하여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적응을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로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연령별로 경제수준, 부모애착, 학업성취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양부모 가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초등학생 표본(패널 2: 초 4 패널)과 중고등학생 표본(패널 1: 중 2 패널) 등 총 2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패널은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추적한 종단자료이다. 초등학생 표본은 1차년도(2004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며, 중고등학생 표본은 1차년도(2003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 4, 5학년(2004-2005년)과 중 2, 3, 고1(2003-2005년)에서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을 각각 케이스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초 6시기의 자료는 한부모 가정의 사례수가 67사례에 불과하여 독립변인의 수와 사례수의 비율이 1:20 이상이 되어야 예측검증력이 낮아지지 않는다(Tabachnick & Fidell, 1989; 양병화, 2004, 재인용)는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사례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1차년도 기준 초등학교 표본 한부모 가정 86명, 양부모 가정 2735명, 중고등학교 표본 한부모 가정 174명, 양부모 가정 3222명) 집단 간 비교에 있어 통계적인 검증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의 표본 크기 비율을 적절히 맞추기 위하여 양부모 가정의 경우 원자료 내에서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으로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무작위 표본 추출을 실시하

였다. 중고등학교 표본의 경우 양부모 가정 전체 데이터 중 각각 6%, 초등학교 표본의 경우 각각 3%를 무작위 추출하여 한부모 가정과 표본 크기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은 한부모(양부모) 가정 초 4 시기 86(100)명, 초 5 시기 85(98)명, 중 2 시기 174(196)명, 중 3 시기 140(179)명, 고 1 시기 158(177)명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문항들은 차례로,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역코딩).’ 등이다. 각 문항들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한부모(양부모) 초 4 시기 .625(.828), 초 5 시기 .637(.785), 중 2 시기 .671(.684), 중 3 시기 .724(.729), 고 1 시기 .752(.776)였다.

경제수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월평균 가구 소득’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개방형으로 코

딩되었다. 월평균 소득은, ‘해당 가구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1년간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금액’으로 측정되었다.

부모애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부모애착’으로 구성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이다. 문항들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이다. 각 문항들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한부모(양부모) 초 4 시기 .664(.782), 초 5 시기 .837 (.809), 중 2 시기 .874(.862), 중 3 시기 .905 (.876), 고 1 시기 .894(.885)였다.

학업성취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성적’으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표본에서는 총 9문항이었고 중고등학교 표본은 총 8문항이었다. 각 문항들은 각 과목별(예: 1) 국어 2) 영어 3) 수학 등)로 1점 ‘매우 못하는 수준’부터 5점 ‘매우 잘하는 수준’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써 자신의 학업능력이 어떠한지

인지하는 주관적 학업성취를 측정한다. 각 문항들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한부모(양부모) 초 4 시기 .742(.804), 초 5 시기 .772(.757), 중 2 시기 .800(.784), 중 3 시기 .808(.740), 고 1 시기 .750(.683)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문제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종단적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로는 하나의 모형으로 종단분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청소년패널 데이터는 초, 중, 고등학생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가 동일 대상은 아니며 중고등학생 자료인 패널 1과 초등학생 자료인 패널 2가 각각 따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을 대상으로 각각 독립표본 t-test,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령에 따른 변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III.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초등학생 표본의 경우,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먼저 한부모 가정에서는 남학생 52.3%(45명), 여학생 47.7%(41명)였으며 94년생(11세) 80.2%(69명), 95년생(10세) 19.8%(17명)였다. 가족구성형태는 부-자 가정이 44.2%(38명), 모-자 가정이 55.8%(48명)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이 74%(54명)로 가장 많았고, 대졸 15.1%(11명), 중졸 이하 9.5%(7명), 전문대졸 1.4%(1명) 순이었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 65.7%(46명)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하 20%(14명), 대졸 12.9% (9명), 전문대졸 1.4%(1명) 순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3%(11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사무 15.8%(9명), 단순노무 15.8%(9명) 등이었으며 어머니 직업은 무직이 38.7%(29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판매직 12.0%(9명), 사무/서비스/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단순노무 등이 각각 모두 9.3%씩(각 7명씩)이었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53%(43명)로 가장 많았으며, 101만원-200만원 31.3%(26명), 201만원 이상 15.7%(13명) 순이었다.

초등학교 표본 양부모 가정의 경우(원자료),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학생 53.6%(1465명), 여학생 46.4%(1270명)였으며 94년생(11세) 85.9%(2349명), 95년생(10세) 13.9%(381명), 93년생(12세) 0.2%(5명)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 42.4%(1142명), 대졸 35.7%(961명), 전문대졸 9.9%(266명), 대학원 이상 6.6%(178명), 중졸 이하 5.4%(145명) 순이었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 60.7%(1631명), 대졸 23.5%(631명), 전문대졸 7.8%(209명), 중졸 이하

6.5%(179명), 대학원 이상 1.5%(41명) 순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이 28.7%(77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기술공(기능원) 16.9%(459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5%(406명) 등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무직이 50.1%(136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판매직 15.2%(414명), 서비스직 9.1%(248명) 등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300만원 32.4%(865명), 101-200만원 28.4%(759명), 301-400만원 18%(478명), 401만원 이상 15.7%(420명)였으며 한부모 가정에서 50% 이상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1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5.5%(146명)였다.

중고등학생 표본의 경우,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먼저 한부모 가정에서는 남학생 46%(80명), 여학생 54%(94명)였으며 89년생(15세) 81%(141명), 90년생(14세) 17.8%(31명), 88년생(16세) 1.1%(2명)였다. 가족구성형태는 부-자 가정이 36.8%(64명), 모-자 가정이 63.2%(110명)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이 50.3%(75명)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하 28.2%(42명), 대졸 16.8%(25명), 전문대졸 3.4%(5명), 대학원 이상 1.4%(2명) 순이었으며, 어머니 교육수준도 고졸이 52.6%(81명)로 가장 많고 중졸 이하 35.0%(52명), 대졸 7.1%(11명), 전문대졸 3.2%(5명), 대학원 이상 1.9%(3명) 순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8.1%(21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사무 14.7%(17명), 단순노무 14.7%(17명), 기술공 및 기능원 12.1%(14명) 등이었으며 무직도 11.2% (13명)나 되었다. 어머니 직업은 무직이 34% (52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서비스직 26.8% (41명), 판매직 16.3% (25명)등이었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55.1%(110명)로 가

장 많았으며, 101만원-200만원 32.9%(52명), 201만원 이상 12%(19명) 순이었다.

중고등학교 표본 양부모 가정의 경우(원자료),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학생 50.3%(1620명), 여학생 49.7%(1602명)였으며 89년생(15세) 78.1%(2516명), 90년생(14세) 21.8%(702명), 88년생 이하(16세 이상) 0.1%(4명)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 43.5%(1384명), 대졸 31.3%(995명), 중졸이하 11%(347명), 대학원 이상 7.3%(233명), 전문대졸 7.1%(225명) 순이었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 58.2%(1839명), 대졸 19.1%(604명), 중졸 이하 16%(506명), 전문대졸 5.0%(159명), 대학원 이상 1.7%(53명) 순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이 23.6%(752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4.9%(474명), 기술공(기능원) 14.6%(464명), 판매 14.5%(461명) 등이었으며, 어머니 직업은 무직이 50.5%(1615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판매직 16.9%(540명), 서비스직 9.8%(315명) 등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1-200만원 32%(974명), 201-300만원 30.2%(916명), 401만원 이상 16.3%(495명), 301-400만원 이상 14.7%(448명)였으며 한부모 가정에서 50% 이상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1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6.8%(206명)였다.

2.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연령별로 한부모 가정 자녀와 양부모 가정 자녀 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모든 연령에서 한부모

표 1. 한부모 가정 자녀와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차이에 대한 t-test 검증 결과

	가족구성형태(N)	M(SD)	t
초 4	한부모(86)	3.36(0.59)	.806
	양부모(100)	3.45(0.76)	
초 5	한부모(85)	3.38(0.56)	1.259
	양부모(98)	3.49(0.64)	
중 2	한부모(174)	3.02(0.63)	1.612
	양부모(196)	3.13(0.58)	
중 3	한부모(140)	3.24(0.63)	1.522
	양부모(179)	3.34(0.62)	
고 1	한부모(158)	3.32(0.61)	-.413
	양부모(177)	3.29(0.64)	

가정 자녀와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한부모-양부모와 같은 가족구성형태에 따라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인으로 초 4 시기 한부모, 양부모 모두 부모 애착과 학업성취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한부모 가정: 부모 애착 $p<.01$, 학업성취 $p<.05$, 양부모가정: 부모 애착 및 학업성취 모두 $p<.01$) 초 5 시기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수준($p<.01$), 부모 애착($p<.05$) 및 학업성취($p<.05$)에서, 양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애착 및 학업성취(모두 $p<.01$)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중 2, 3 시기에는 한부모, 양부모 모두 부모 애착 및 학업 성취 (모두 $p<.01$)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고 1 시기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수준 ($p<.05$), 부모 애착 ($p<.01$) 및 학업 성취 ($p<.01$)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양부모 가정은 부모 애착 및 학업 성취(모두 $p<.01$)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수준, 부모애착 및 학업성취가 모두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정적 관련을 보였으며, 경제수준, 부모애착 및 학업성취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연령별로 한부모와 양부모 가정에서 각각 다른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4. 경제수준, 부모애착, 학업성취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제수준, 부모애착, 학업성취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양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양부모 가정의 경우도 함께 검증하였다. 이에 앞서,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각 독립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6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Durbin-Watson 값의 검정결과, 한부모 (양부모) 초 4 시기 1.777(2.042), 초 5 시기 1.891(2.149), 중 2 시기 2.101(2.079), 중 3 시기 1.869(1.766), 고 1 시기 1.768(1.894) 로서 모두 2에 근접한 수치

표 2. 한부모 가정 및 양부모 가정 자녀의 변인 간 상관관계

한부모 가정					양부모 가정				
	초4경제	초4부모	초4학업	초4자존		초4경제	초4부모	초4학업	초4자존
초4경제	1				초4경제	1			
초4부모	.179	1			초4부모	-.037	1		
초4학업	.122	.157	1		초4학업	.183	.390**	1	
초4자존	.120	.303**	.235*	1	초4자존	.014	.519**	.538**	1
	초5경제	초5부모	초5학업	초5자존		초5경제	초5부모	초5학업	초5자존
초5경제	1				초5경제	1			
초5부모	.090	1			초5부모	.109	1		
초5학업	.159	.117	1		초5학업	.009	.112	1	
초5자존	.343**	.214*	.216*	1	초5자존	-.109	.336**	.347**	1
	중2경제	중2부모	중2학업	중2자존		중2경제	중2부모	중2학업	중2자존
중2경제	1				중2경제	1			
중2부모	.121	1			중2부모	.062	1		
중2학업	.161*	.261**	1		중2학업	.018	.284**	1	
중2자존	.023	.253**	.352**	1	중2자존	-.020	.323**	.344**	1
	중3경제	중3부모	중3학업	중3자존		중3경제	중3부모	중3학업	중3자존
중3경제	1				중3경제	1			
중3부모	.123	1			중3부모	.034	1		
중3성적	.213**	.233**	1		중3성적	.182*	.246**	1	
중3자존	.090	.296**	.396**	1	중3자존	.049	.335**	.401**	1
	고1경제	고1부모	고1학업	고1자존		고1경제	고1부모	고1학업	고1자존
고1경제	1				고1경제	1			
고1부모	.211**	1			고1부모	.087	1		
고1학업	.193*	.144	1		고1학업	.086	.242**	1	
고1자존	.193*	.216**	.211**	1	고1자존	.019	.305**	.262**	1

note. 경제: 경제수준, 부모: 부모애착, 학업: 학업성취, 자존: 자아존중감. * $p < .05$, ** $p < .01$

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Dillon & Goldstein, 1984; 양병화, 2004, 재인용)도 확인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 4 시기에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설명력 14.4%로 부모애착($\beta = .265$, $p < .01$), 학업성취($\beta = .215$, $p < .05$) 순으로 각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

표 3. 경제수준, 부모애착, 학업성취가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한부모 가정 예측변인	자아존중감				양부모 가정 예측변인	자아존중감		
		B	β	t			B	β	t
초 4	경제수준	.000	.046	.436	초 4	경제수준	.000	-.047	-.583
	부모애착	.235	.265	2.475**		부모애착	.376	.359	4.162***
	학업성취	.247	.215	2.024*		학업성취	.526	.406	4.633***
		R ² = .144 Adj R ² = .112	F=4.439**				R ² = .404 Adj R ² = .385	F=21.680***	
초 5	경제수준	.002	.306	2.894**	초 5	경제수준	-.001	-.145	-1.565
	부모애착	.140	.189	1.791		부모애착	.280	.313	3.349**
	학업성취	.120	.125	1.178		학업성취	.360	.316	3.396**
		R ² = .175 Adj R ² = .142	F=5.357**				R ² = .233 Adj R ² = .207	F=9.089***	
중 2	경제수준	.000	-.046	-.607	중 2	경제수준	-.000	-.040	-.597
	부모애착	.130	.176	2.265*		부모애착	.180	.247	3.522**
	학업성취	.282	.295	3.764***		학업성취	.238	.279	3.991***
		R ² = .143 Adj R ² = .126	F=8.533***				R ² = .180 Adj R ² = .166	F=13.444***	
중 3	경제수준	.000	-.013	-.158	중 3	경제수준	-.000	-.022	-.311
	부모애착	.181	.226	2.725**		부모애착	.192	.228	3.199**
	학업성취	.330	.326	3.844***		학업성취	.332	.346	4.769***
		R ² = .190 Adj R ² = .170	F=9.756***				R ² = .209 Adj R ² = .194	F=14.577***	
고 1	경제수준	.001	.126	1.520	고 1	경제수준	-.000	-.025	-.339
	부모애착	.095	.122	1.486		부모애착	.229	.266	3.567***
	학업성취	.177	.175	2.142*		학업성취	.242	.206	2.756**
		R ² = .082 Adj R ² = .063	F=4.274**				R ² = .139 Adj R ² = .123	F=8.853***	

*p<.05, **p<.01, ***p<.001

향을 미쳤으며 반면 양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설명력 40.4%로 학업성취($\beta = .406$, $p < .001$), 부모애착($\beta = .359$, $p < .0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초 5 시기에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설명력 17.5%로 초 4 시기와 달리 경제수준($\beta = .306$,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나, 양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설명력 23.3%로 초 4 시기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beta = .316$, $p < .001$), 부모애착($\beta = .313$, $p < .001$)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중 2, 중 3 등 중학교 시기에는 한부모, 양부모 가정 자녀 모두 학업성취(중 2 한부모: $\beta =$

.295, $p < .001$, 양부모: $\beta = .279$, $p < .001$, 중 3 한부모: $\beta = .326$, $p < .001$, 양부모: $\beta = .346$, $p < .001$, 부모애착(중2 한부모: $\beta = .176$, $p < .05$, 양부모: $\beta = .247$, $p < .01$, 중3 한부모: $\beta = .226$, $p < .01$, 양부모: $\beta = .228$, $p < .01$)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설명력은 중 2 한부모 14.3%, 양부모 18.0%, 중 3 한부모 19.0%, 양부모 20.9%였다. 고 1이 되어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설명력 8.2%로 학업성취($\beta = .175$, $p < .05$) 만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양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설명력 13.9%로 부모애착($\beta = .266$, $p < .001$), 학업성취($\beta = .206$, $p < .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양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 초 4부터 중 3까지 계속하여 학업성취, 부모애착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다가 고 1 시기에 학업성취보다 부모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커졌다. 반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아존중감에 부모애착 또는 경제수준이 학업성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나 중학교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학업성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고 1 시기에는 학업성취만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제수준, 부모애착 및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대체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며, 또한 경제수준, 부모애착, 학업성취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양부모 가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연령에서 두 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오승환(2001)과 정익중 등(2006)의 연구에서 한부모와 양부모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희정(2003)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연령에서 두 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한부모 가정’이라는 가족 구조 자체가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 외 다른 특성들이 매개적 혹은 중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로 부모의 이혼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경제수준, 양육태도 등을 통해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홍순혜(2004)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어두운 편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은 가족 구조적 측면에서 다루기보다는 어떠한 가족 과정이 일어나고 있

는지 역동적 과정을 보다 면밀히 탐색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수준, 부모애착, 학업성취가 연령 단계별로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양부모 가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 초 4 시기에는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초 5 시기에는 경제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경제수준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 부모애착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부모애착의 유의한 영향이 사라졌으며 학업성취만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양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 초 4부터 중 3까지 계속하여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다가 고 1이 되어서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수준은 어느 연령에서도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수입(Gershoff et al., 2007),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박영애 등, 2002; 홍순혜, 2004) 및 학업 성취(윤경희, 김경희, 2003; 이숙정, 2006) 등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을 가진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은, 연령에 따라 혹은 한부모 가정인지 양부모 가정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령단계에서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양부모 가정과 달리,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애착 또는 집안의 경제수준과 같은 가족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부모 가정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또래 간 학습 차이가 중고등학교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아르바이트와 같이 스스로 경제력을 보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므로 부모와의 관계나 집안의 경제적 능력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학업성취가 개인의 잠재력을 사실상 가장 크게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에서 본격적으로 개개인 간 학습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학교부터는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똑같이 스스로의 학업성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아동기까지는 아직 상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또래와 비교되는 집안의 경제적 문제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청소년기로 갈수록 어린 시기에 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장점을 살려 그에 따라 자기의 가치를 형성해 가게 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을 둘러싼 가족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기 보다는 본인의 장단점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욱 뚜렷해져서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특히 고 1 시기에는 학업성취만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오히려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양부모 가정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입시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모와의 안정된 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위안을 추구하지만,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 환경적인 특성 상 보다 빨리 독립을 요구받게 되고,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는 대신 어떤 부분이든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가정에 대한 책임감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한 환경에서 가정과 본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학업성취’이며 이는 양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더 절실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가 원하는 만큼 잘 이루어질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자신은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양부모 가정에 비해 환경적인 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학업성취 수준도 낮으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해지며 가정 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도 불안정해져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방향은 이렇듯 연령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예측변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부모애착 및 경제수준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 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적 지원 강화 등의 프로그램 및 정책이 필요하다. 부자 가정 뿐 아니라 모자 가정도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들은 대부분의 하루일과를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모는 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시간과 체력이 모두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져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주위의 편견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자녀 양육에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시기 부모애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한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강연회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홍보하여 한부모 가정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춘기의 도래로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친구와의 교류와 비교가 잦아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가진 자신의 모습에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며 갖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는 아동들의 마음을 배려해야 한다. 특히, 성인들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큰 집, 유명 메이커, 명품 등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아동들에게까지 팽배해져 있는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부모와 교사의 올바른 지도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반면,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적과 같은 학업능력은 투자와 지원이 많이 제공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따라 비례하는 결과가 산출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힘들다면, 청소년들에게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나 교사는 청

소년들에게 개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목표를 강요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를 단계별로 할당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단기 종단적 자료로 양부모 가정과 비교하여 연령별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살펴본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입 방향이 연령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변화를 각 연령에 대한 횡단분석을 통해 총체적으로 살펴본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추적조사를 통해 하나의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여 종단적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도출할 것이 권장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경제수준, 부모애착 및 학업성취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양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는 이러한 예측변인들 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역동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변인의 추가 혹은 중재와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은 환경적으로 분명히 다르며 가정 내 어려움과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자 가정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비해 부-자 가정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된 원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 가정 등 여러 형태의 한부모 가정이 있다. 특히, 이혼이나 미혼모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별의 경우보다 더욱 수용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비행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 권장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한부모 가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선화, 김춘경 (2006).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관련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 행동장애연구, 22(3), 325-348.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5-522.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아동이 지 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의 성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43-60.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2006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보건복지부.
- 양병화 (2004).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오승환 (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77-107.
- 윤경희, 김경희 (2003). 중학생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3), 5-25
- 윤신기 (2004). 초, 중등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법간의 관계. *아동교육*, 13(2), 239-251.
- 이숙정 (2006). 중, 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정익중, 김경준, 김지혜, 류명화 (2006). 빈곤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동광*, 102, 1-77.
- 정희정 (2003).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민 (2007). 한부모가족의 적응 -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07-126.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 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통계청, www.nso.go.kr, 2007 한국의 사회지표.
- Brinthaupt, T. M., & Erwin, L. J. (1992). Reporting about the self: Issues and implication. In T. M., Brinthaupt & R. P. Lipka (Eds.), *The self: definition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137-171).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Dillon, W. R. & Goldstein, M. (1984).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John Wiley & Sons.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1), 70-95.
- Kalil, A., & Ziol-Guest, K. M. (2005). Single mothers' employment dynamics and adolescent well-being. *Child Development*, 76(1), 196-211.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 & Row.
- 1 차원고접수 : 2008.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8. 05. 28.
최종게재결정 : 2008. 06. 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s in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 A comparison with two-parent families -

Lee, Kyung-Eun

Doctoral Course,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ersity

Lee, Ju-Li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vels of self-esteem seen in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and that of the levels of self-esteem seen in children from two-parent families. In addition, the effects of economic levels, degree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up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and two-parent families according to age were also analyzed. The participants wer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aken from data from the KYPS (Korea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ways; by frequencies, independent sample t-test, Pearson correlations, an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ifferences of levels of self-esteem between the two groups were not significant in all age. (2) For children from two-parent families, academic achievements and attachment levels to parents greatly influenced the self-esteem levels of children in regular sequence, but, for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the level of attachment to parents or economic levels most strongly influenced the self-esteem of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Academic levels of achievement and attachment levels to parents influenced the self-esteem of children in middle school, whereas academic achievement by itself influenced the self-esteem of children in high school.

Key words :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children from two-parent families, self-esteem, age-related change